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높은 이자율로 주택 가격 다시 타격받아
- Bloomberg: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 유지
- WSJ: 연방중앙 총재 2명, “예전 금리 인상 효과 지켜보아야”
- Bloomberg: 속보 :파월 의장 청문회서, “올해 아마도 한 두번 금리 인상”
- NYT: “인플레 싸움에서 아직 이기지 않았다”
- WSJ Real Time Economics: 바이든이 직면한 중국 도전 - 인도의 미 방문, 중국 대항 의도 - 마리화나 미국인 들고 있다 - 월가, 변호사가 은행가보다 더 번다

[미국 금융]

- Bloomberg: FDIC 의장, “중간 크기 은행에 자본 요구 기준 강화”

[중국 경제]

- WSJ: 중국 중소기업, 경제 회복 둔화로 타격 받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온라인 의류점, 반품 불가 품목 늘린다
- WSJ: 패션 업체 Shein, 중국 이미지 탈피 시도
- Bloomberg: AI 생산성 붐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Bloomberg: Ford 92억불 확보... 중국 EV와 경쟁
- WSJ: FTC 아마존 고소 “프라임 등록에 사용된 조작 전술”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Higher Interest Rates Hit Home Prices Again

높은 이자율로 주택 가격 다시 타격받아

- 5월 미국 기존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 전미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5월 미전역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1% 하락한 39만 6천1백 달러로 201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 주택 판매의 대부분 점유율인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5월에 4월 대비 0.2% 늘어 계정 조정 연간 기준으로 4백30만 건을 기록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Hold at Highest Level Since October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 유지

-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를 유지하면서 지난주 변동이 없었다. 노동시장이 다소 식은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다.
- 연방노동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6월 17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 청구건이 26만4천을 유지하고 있다. 그 전주에서 약간 상향 조정된 수치.
- 청구 건수의 증가 추세는 최근 기술 업계와 은행 업계의 정리해고 발표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 둔화 조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반면에 계속 수당을 받는 전체 숫자는 1백76만건으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WSJ: Chicago Fed's Austan Goolsbee Not Certain What Central Bank's Next Move Should Be **연방중앙 총재 2명, “예전 금리 인상 효과 지켜보아야”**

- 시카고 연방중앙은행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다음달 FOMC에서 자신이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인데 상품의 지속적인 인플레이 놀랐으며 다른 이슈를 포함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인 Raphael Bostic은 “지금까지 연준이 많은 일을 해왔다”며 “지금까지의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 목표 2%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시간을 갖고 지켜볼 때”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으로 경제 모멘텀을 불필요하게 고갈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Powell Defies Critics and Makes Case for Why Rates Must Rise **파월 의장 청문회서, “올해 아마도 한 두번정도 금리 인상”**

-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목요일 열린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 2%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며 “올해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며 아마도 한 두번 정도는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청문회에서도 금리 인상 조치가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민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를 목표치로 낮추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그는 2% 목표를 이루는데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NYT: Is the Inflation Battle Won? Not Yet.**“인플레 싸움에서 아직 이기지 않았다”**

- 파월 의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 전체 인플레는 하락세를 보이지만 식료품과 연료비는 오르고 있다. 치과, 헤어 스타일링, 교육, 자동차 보험이 오르고 있다.
- 지난주 연준 관리는 올해 말 핵심 인플레를 3월 예측 3.6%보다 높은 3.9%를 예상한다. 목표치 2%보다 두배 높다. 인플레가 지속될 수 있다는 미묘한 징후와 미국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을 무시할수 없는 상황이다.
- MIT 공대 경제학자이자 전 영국은행 정책 결정자였던 Kristin J. Forbes는 “우리는 성과를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더디다. 인플레는 우리 당초 예상보다 다소 더 고집스럽다”고 진단했다.

NYT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바이든이 직면한 중국 도전 - 인도의 미 방문, 중국 대항 의도 - 마리화나 미국인 들고 있다 - 월가, 변호사가 은행가보다 더 번다**[바이든이 직면한 중국 도전]**

- 중국은 군사력, 광활한 시장, 지정학적 영향력 등 다양한 힘을 갖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구축한 교두보적 위치가 인상적이다.
-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인 ‘무역거래’를 오히려 피하고 있다. 그 이유와 관련해 무역대표부 대표인 Katherine Tai는 “자유무역이 세계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의 미 방문, 중국 대항 의도]

- 겉으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말을 미 관리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막기 위해 인도와 국방, 기술, 기후 문제에서 가까워지는 노력을 바이든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미국인 들고 있다]

- 현재 미국 성인중 1명이 마리화나를 흡연하는데 담배 흡연자를 넘어선 수치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직원 약물 검사를 폐지했다.
-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관리자들에게 의존, 근로자가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경정한다는 것이다.

[월가, 변호사가 은행가보다 더 번다]

- 변호사들이 월스트리트 은행가보다 몇배의 수익을 올린다. 은행의 고위 경영진이 아닌 메니징 디렉터의 경우 대부분 평균 연봉이 1~2백만. 반면 상위 로펌 주식 파트너는 연간 3백만 달러 이상이라는 것. 특히 일부 주식 파트너는 1천5백만달러이상 번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

Bloomberg: FDIC Chair Backs Stricter Capital Requirements for Midsize Banks

FDIC 의장, “중간 크기 은행에 자본 요구 기준 강화”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Martin Gruenberg는 자산이 최소 1천억달러 이상인 미국 은행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에 직면할 경우 너 많은 자본금이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룰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Silicon Valley Bank를 연방 은행이 인수하는 과정을 감독 조사한 규제 당국은 이 은행의 실패가 중형은행에 더 엄격한 자본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단, Gruenberg 의장은 이러한 자본 요건에서 커뮤니티 은행들은 면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WSJ: These Businesses Are Getting Hit Hard by China's Faltering Economic Recovery

중국 중소기업, 경제 회복 둔화로 타격 받다

- 중국 중소기업은 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중국 공식 데이터와 대출 기관의 공개 자료 등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매가 두 달 연속 위축되었다. 중국 중소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7.9를 기록했다(50미만은 기업 활동 둔화를 의미).
- PMI 하위 지수에 따르면 5월 중소기업 고용은 48.7이다.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감원하고, 퇴사한 직원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More Online Clothing Sales Come With a Catch: No Returns **온라인 의류점, 반품 불가 품목 늘린다**

- 팬데믹 때에는 온라인 쇼핑과 간편한 반품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2022년 의류 소매업체들은 쇼핑 감소와 재고 증가가 맞물리면서 반품이 불가능한 품목을 더 많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 이와 관련 중고 웹사이트 Poshmark는 반품 불가 품목이 2022년 이후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매업체가 반품 불가 품목을 판매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품이 자신에게 맞지 않더라도 반품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NYT 기사

WSJ: America's Top Fast-Fashion Retailer Tries to Shed Its Chinese Image

패션 업체 Shein, 중국 이미지 탈피 시도

- 현재 Shein은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미국 최고의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이다. 6불짜리 샌들 같이 초저가 의류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 하지만 서방 의원들은 Shein이 중국 Xinjiang 지역에서 면화를 공급 받는 지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Xinjiang 지역은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적이 있다.
- Shein은 중국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의류 노동자 근무 조건 개선, 탄소 발자국 상쇄를 위한 수천만 불 기부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 또한 그들은 강제 노동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Xinjiang 지역에 제조업체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It's Too Early to Proclaim an AI Productivity Boom

AI 생산성 붐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기업들이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에 대해 걱정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 McKinsey & Co.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생산성 촉진제이다. 이 회사의 수석 파트너 Lareina Yee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인간에게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했다.
- M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9%의 사람들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까봐 걱정된다고 답했지만, 70%의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덜고 싶다고 답했다.
- McKinsey의 연구원들은 AI가 연간 4조 4천억 불의 경제적 이익을 세계 경제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전 세계 생산량의 4.4%에 해당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ord Gets \$9.2 Billion to Help US Catch Up With China's EV Dominance**Ford 92억불 확보... 중국 EV와 경쟁**

- 미국 정부가 포드에 92억 불 조건부 대출을 제공했다. 미국 정부는 미래형 에너지 사업 자금을 지원한 것이며, 포드는 이를 세 개의 배터리 공장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2009년 이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중 최대 규모이며, 미국 제조업체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포드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은 이미 Kentucky와 Tennessee 주에 건설 중이다. 포드는 2026년까지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에 생산한 약 13만 2천 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Bloomberg 기사

WSJ: FTC Sues Amazon Over 'Manipulative' Tactics Used to Enroll Millions in Prime**FTC 아마존 고소 "프라임 등록에 사용된 조작 전술"**

-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수요일 아마존을 고소했다. 아마존이 수년 동안 동의 없이 소비자를 프라임 서비스에 등록하고, 구독을 취소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다.
- "아마존은 소비자를 속여 동의 없이 구독에 가입하도록 했고, 고객으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지불케 했다"라고 FTC 위원장인 Lina Khan이 말했다.
- 아마존 대변인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라며 "우리는 고객이 프라임 멤버십 가입과 취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빅테크 해고·비용절감에 실리콘밸리 공실률 2019년 11%→17%****"샌프란 25%와 격차 줄어들 것"...구글·메타 사무실 재임대 나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 등으로 실리콘밸리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코스타그룹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와 팰로앨토, 서니베일 등을 포함하는 실리콘밸리의 공실률은 이달 초 17%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의 11%에서 크게 올라간 수준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